



22일 열린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 시상식에서 류지성 심사위원장(왼쪽)과 박우정 고창군수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우정 고창군수 경영혁신 대상

2017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 시상식... 현장행정 등 인정받아

고창군이 '2017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에서 경영혁신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2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 시상식은 중앙일보사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월간중앙, JTBC가 후원해 열렸다.

이 상은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혁신경영 등 리더들의 중장기적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이를 통해 공공기관과 기업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가고 있는 우수사례를 선정 시상해 조직에서 리더의 역할과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군은 그동안 군민의 행복한 삶과 더 나은 환경을 위해 적극적인 현장행정으로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고, 기업의

지역 투자를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함은 물론 친환경정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면서 자연생태관광도시의 성공모델을 제시해 지역의 변화와 혁신을 이끈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산업화와 지역개발 논리에 의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주민과 기업체와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설득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서 활발한 소통행정에 힘써왔다.

박우정 군수는 "미래에는 잘 보존관리된 자연이 중요한 자산이자 고창군의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친환경·친자연 정책을 핵심으로 추진해온 만큼 앞으로도 자연과 사람이 함께 조화를 이뤄 행복한 고창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성규 기자



고창군 CEO 리더십 대상 경영혁신 대상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2017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에서 경영혁신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2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 시상식은 중앙일보사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월간중앙, JTBC가 후원해 열렸다.

특히 운곡람사르습지 에코촌 조성사업과 운곡습지 생태 관광 활성화 사업, 인천강기수역 습지보호지역 지정 등을 통해 국내 최고의 자연생태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박우정 군수는 “미래에는 잘 보존관리된 자연이 중요한 자산이자 고창군의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친환경·친자연 정책을 핵심으로 추진해 온 만큼 앞으로도 자연과 사람이 함께 조화를 이뤄 행복한 고창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남궁경종 기자

자연생태관광도시 성공모델 박우정 고창군수 'CEO 리더십 대상'

지역 변화·혁신 성과 인정받아

박우정(사진) 고창군수가 친환경 자연생태 관광도시의 성공모델을 제시하고 지역의 변화와 혁신을 이끈 성과를 인정받아 '2017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에서 경영혁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2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은 중앙일보사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월간중앙, JTBC가 후원해 열렸다.



이 상은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혁신경영 등 리더들의 중장기적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과 기업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가고 있는 우수사례를 선정, 시상함으로써 조직에서 리더의 역할과 지속가

능한 경영활동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공적을 보면 박우정 군수는 그동안 군민의 행복한 삶과 더 나은 환경을 위해 적극적인 현장행정으로 맞춤형 복지를 구현한 한편 기업의 지역 투자를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함은 물론 친환경정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는 등 자연생태관광도시의 성공모델을 제시해 지역의 변화와 혁신을 이끈 성과를 적시하고 있다.

특히 산업화와 지역개발 논리에 의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주민과 기업체와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설득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소통행정에 힘써왔다고 했다.

박 군수는 "친환경·친자연 정책을 핵심으로 추진해온 만큼 앞으로도 자연과 사람이 함께 조화를 이뤄 행복한 고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고창=신동일기자·sd1@

고창군,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

경영혁신 부문 업적 인정... 난개발 방지 위한 주민·기업 소통행정 눈길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2017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에서 경영혁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2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 시상식은 중앙일보사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월간중앙, JTBC가 후원해 열렸다.

이 상은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혁신경영 등 리더들의 중장기적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이를 통해 공공기관과 기업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가고 있는 우수사례를 선정 시상해 조직에서 리더의 역할과 지속 가능한 경영활동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박우정 군수는 그동안 군민의 행복한 삶과 더 나은 환경을 위해 적극적인 현장행정으로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고, 기업의 지역 투자를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함은 물론 친환경정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면서 자연생태관광 도시의 성공모델을 제시해 지역의 변화와 혁신을 이끈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산업화와 지역개발 논리에 의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주민과 기업체와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설득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서 활발한 소통행정에 힘써왔다.

군은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우수한 자연 생태환경을 잘 지키고 보전하면서 군민들이 이를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운곡탐사르습지 에코촌 조성사업과 운곡습지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인천강기수역 습지보호지역 지정 등을 통해 국내 최고의 자연생태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고창=박용관 기자(sc0747@)

고창군 CEO 리더십 경영혁신부문 대상

현장행정 맞춤형 복지구현 등
지역 혁신 경제 활성화 인정

중앙일보사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월간중앙, JTBC가 후원하는 '2017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에서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경영혁신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박우정 군수는 그동안 군민의 행복한 삶과 더 나은 환경을 위해 적극적인 현장행정으로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고, 기업의 지역 투자를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함은 물론 친환경정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면서 자연생태관광도시의 성공모델을 제시해 지역의 변화와 혁신을 이끈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주민과 기업체와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설득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면서 활발한 소통행정에 힘써왔다.

군은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



중앙일보사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월간중앙, JTBC가 후원하는 '2017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에서 고창군이 경영혁신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우수한 자연생태환경을 잘 지키고 보전하면서 군민들이 이를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운곡탐사르습지 에코촌 조성 사업과 운곡습지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인천강기수역 습지보호지역 지정 등을 통해 국내 최고의 자연생태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박우정 군수는 “미래에는 잘 보존 관리 된 자연이 중요한 자산이자 고창군의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친환경·친자연 정책을 핵심으로 추진해온 만큼 앞으로도 자연과 사람이 함께 조화를 이뤄 행복한 고창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준완기자 jwkim@

고창군 '2017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 수상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2017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에서 경영혁신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2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 시상식은 중앙일보사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월간중앙, JTBC가 후원해 열렸다.

이 상은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혁신경영 등 리더들의 중장기적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이를 통해 공공기관과 기업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가고 있는 우수사례를 선정 시상해 조직에서 리더의 역할과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박우정 군수는 그동안 군민의 행복한 삶과 더 나은 환경을 위해 적극적인 현장행정으로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고, 기업의 지역 투자를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함은 물론 친환경정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면서 자연생태관광도시의 성공 모델을 제시해 지역의 변화와 혁신을 이끈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산업화와 지역개발 논리에 의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주민과 기업체와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설득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면서 활발한 소통행정에 힘써왔다.

고창=임동갑기자

고창 'CEO 리더십 대상' 수상

중앙일보 주최 · 경영혁신부문
친환경정책 모범적 추진 인정
박우정군수 "행복한 郡 만들 것"

고창군이 '2017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에서 경영혁신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2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 시상식은 중앙일보사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월간중앙, JTBC가 후원해 열렸다.

이 상은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혁신경영 등 리더들의 중장기적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이를 통해 공공기관

과 기업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가고 있는 우수사례를 선정 시상해 조직에서 리더의 역할과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박우정 군수는 그동안 군민의 행복한 삶과 더 나은 환경을 위해 적극적인 현장행정으로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고 기업의 지역 투자를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함은 물론 친환경정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면서 자연생태관광도시의 성공모델을 제시해 지역의 변화와 혁신을 이끈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산업화와 지역개발 논리에 의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주민과 기업체와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설득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면서 활발한 소통행정에

힘써왔다.

군은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우수한 자연생태환경을 잘 지키고 보전하면서 군민들이 이를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운곡탐사르습지 에코촌 조성사업과 운곡습지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인천강기수역 습지보호지역 지정 등을 통해 국내 최고의 자연생태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박우정 군수는 "미래에는 잘 보존관리 된 자연이 중요한 자산이자 고창군의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친환경·친자연 정책을 핵심으로 추진해온 만큼 앞으로도 자연과 사람이 함께 조화를 이뤄 행복한 고창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신익희기자/syhee5311@hanmail.net

행복한 고창군 만들기 '최선'

2017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 경영혁신부문 대상 수상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2017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에서 경영혁신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2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 시상식은 중앙일보사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월간중앙, JTBC가 후원해 열렸다.

이 상은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혁신경영 등 리더들의 중장기적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이를 통해 공공기관과 기업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가고 있는 우수사례를 선정 시상해 조직에서 리더의 역할과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박우정 군수는 그동안 군민의 행복한 삶과 더 나은 환경을 위해 적극적인 현장행정으로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고, 기업의 지역 투자를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한 것은 물론 친환경정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면서 자연생태관광도시의 성공모델을 제시해 지역의 변화와



(좌)류지성 심사위원장, (우)박우정 고창군수

혁신을 이끈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산업화와 지역개발 논리에 의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주민과 기업체와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설득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면서 활발한 소통행정에 힘써왔다.

군은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우수한 자연생태환경을 잘 지키고 보전하면서 군민들이 이를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운곡람사르습지 에코촌 조

성사업과 운곡습지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인천강기수역 습지보호지역 지정 등을 통해 국내 최고의 자연생태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박우정 군수는 “미래에는 잘 보존관리 된 자연이 중요한 자산이자 고창군의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친환경·친자연 정책을 핵심으로 추진해온 만큼 앞으로 도 자연과 사람이 함께 조화를 이뤄 행복한 고창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고창=조종욱 기자



고창군, 2017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

지난 22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 시상식에서 고창군이 경영혁신부문 대상을 수상해 박우정 군수와 관계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박동현 기자

고창군,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

경영혁신부문... 맞춤형 복지
모범적 친환경정책 추진 등
지역 변화·성과 이끌어 내

고창군이 '2017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에서 경영혁신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22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 시상식은 중앙일보사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월간중앙, JTBC가 후원해 열렸다.
이 상은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탁월

한 리더십을 발휘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혁신경영 등 리더들의 중장기적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이를 통해 공공기관과 기업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가고 있는 우수사례를 선정 시상해 조직에서 리더의 역할과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박우정 군수는 그동안 군민의 행복한 삶과 더 나은 환경을 위해 적극적인 현장행정으로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고 기업의 지역 투자를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한 것은 물론 친환경정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면

서 자연생태관광도시의 성공모델을 제시해 지역의 변화와 혁신을 이끈 성과를 인정받았다.

박우정 군수는 특히 산업화와 지역개발 논리에 의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주민과 기업체와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실효와 발전방향을 제시하면서 활발한 소통행정에 힘써왔다.

군은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우수한 자연생태환경을 잘 지키고 보전하면서 군민들이 이를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운곡탐사르습지 에코촌 조성사업과 운곡습지 생태관광 활성화사업, 인천강기수역 습지보호지역 지정 등을 통해 국내 최고의 자연생태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박우정 군수는 "미래에는 잘 보존 관리 된 자연이 중요한 자산이자 고창군의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친환경·친자연 정책을 핵심으로 추진해온 만큼 앞으로도 자연과 사람이 함께 조화를 이뤄 행복한 고창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박동현 기자

고창군,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 수상

맞춤형 복지 구현 결산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2017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에서 경영혁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2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 시상식은 중앙일보사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월간중앙, JTBC가 후원해 열렸다.

이 상은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혁신경영 등 리더들의 중장기적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이를 통해 공공기관과 기업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가고 있는 우수사례를 선정 시상해 조직에서 리더의 역할과 지속 가능한 경영활동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박우정 군수는 그동안 군민의 행복한 삶과 더 나은 환경을 위해 적극적인 현장행정으로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고, 기업의 지역 투자를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함은 물론 친환경 정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면서 자연 생태관광도시의 성공모델을 제시해 지역의 변화와 혁신을 이끈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산업화와 지역개발 논리에 의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주민과 기업체와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설득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면서 활발한 소통 행정에 힘써왔다.

군은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우수한 자연생태환경을 잘 지키고 보전하면서 군민들이 이를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운곡람사르습지 예코촌 조성사

업과 운곡습지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인천강기수역 습지보호지역 지정 등을 통해 국내 최고의 자연생태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박우정 군수는 “미래에는 잘 보존관리 된 자연이 중요한 자산이자 고창군의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친환경·친자연 정책을 핵심으로 추진해온 만큼 앞으로도 자연과 사람이 함께 조화를 이뤄 행복한 고창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2017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

지난 22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 시상식에서 고창군이 경영혁신부문 대상을 수상해 박우정 군수와 관계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박동현 기자

고창군,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

경영혁신부문... 맞춤형 복지
모범적 친환경정책 추진 등
지역 변화·성과 이끌어 내

고창군이 '2017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에서 경영혁신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22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 시상식은 중앙일보사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월간중앙, JTBC가 후원해 열렸다.

이 상은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혁신경영 등 리더들의 중장기적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이를 통해 공공기관과 기업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가고 있는 우수사례를 선정 시상해 조직에서 리더의 역할과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박우정 군수는 그동안 군민의 행복한 삶과 더 나은 환경을 위해 적극적인 현장행정으로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고 기업의 지역 투자를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함은 물론 친환경정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면서 자연생태관광도시의 성공모델을 제시해 지역의 변화와 혁신을 이끈 성과를 인정받았다.

박우정 군수는 특히 산업화와 지역개발 논리에 의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주민과 기업체와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설득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면서 활발한 소통행정에 힘써왔다.

군은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우수한 자연생태환경을 잘 지키고 보전하면서 군민들이 이를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운곡탐사르습지 에코촌 조성 사업과 운곡습지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인천강기수역 습지보호지역 지정 등을 통해 국내 최고의 자연생태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박우정 군수는 "미래에는 잘 보존 관리 된 자연이 중요한 자산이자 고창군의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친환경·친자연 정책을 핵심으로 추진해온 만큼 앞으로도 자연과 사람이 함께 조화를 이뤄 행복한 고창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박동현 기자

고창군, 'CEO 리더십' 경영혁신부문 대상

박우정 군수, 적극 현장행정으로 맞춤형 복지 구현

각종 규제 과감한 개혁·친환경정책 모범 추진 성과 인정받아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2017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에서 경영혁신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2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 시상식은 중앙일보사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월간중앙, JTBC가 후원해 열렸다.

이 상은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혁신경영 등 리더들의 중장기적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이를 통해 공공기관과 기업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가고 있는 우수사례를 선정 시상해 조직에서 리더의 역할과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박우정 군수(사진)는 그동안 군민의 행복한 삶과 더 나은 환경을 위해 적극적인 현장행정으로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고, 기업의 지역 투자를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건어내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함은 물론 친환경정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면서 자연생태관광도시의 성공모델을 제시해 지역의 변화와 혁신을 이끈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산업화와 지역개발 논리에 의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주민과 기업체와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설득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면서 활발한 소

통행정에 힘써왔다.

군은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우수한 자연생태환경을 잘 지키고 보전하면서 군민들이 이를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윤곡람사르습지 에코촌 조성사업과 윤곡습지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인천강기수역 습지보호지역 지정 등을 통해 국내 최고의 자연생태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박우정 군수는 "미래에는 잘 보존관리된 자연이 중요한 자산이자 고창군의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친환경·친자연 정책을 핵심으로 추진해온 만큼 앞으로도 자연과 사람이 함께 조화를 이뤄 행복한 고창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태완 기자

자연생태도시 성공모델 제시

고창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 수상... 친환경 정책 모범 추진 등 호평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2017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에서 경영혁신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2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 시상식은 중앙일보사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월간중앙, JTBC가 후원해 열렸다.

이 상은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혁신경영 등 리더들의 중장기적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이를 통해 공공기관과 기업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가고 있는 우수사례를 선정 시상해 조직에서 리더의 역할과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박우정 군수는 그동안 군민의 행복한 삶과 더 나은 환경을 위해 적극적인 현장행정으로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고, 기업의 지역 투자를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함은 물론 친환경정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면서 자연생태관광도시의 성공모델을 제시해 지역의 변화와 혁신을 이



고창군이 22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 시상식에서 경영혁신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끈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산업화와 지역개발 논리에 의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주민과 기업체와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설득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면서 활발한 소통행정에 힘써왔다.

군은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우수한 자연생태환경을 잘 지키고 보

전하면서 군민들이 이를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운곡람사르습지 에코촌 조성 사업과 운곡습지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인천강기수역 습지보호지역 지정 등을 통해 국내 최고의 자연생태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고창=김종성 기자 · kjs56730@daum.net

박우정 고창군수, 탁월한 리더십 인정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서
경영혁신부문 대상

중앙일보사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월간중앙, JTBC가 후원하는 ‘2017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 시상식에서 고창군 박우정 군수가 경영혁신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은 공공기관과 기업의 리더들이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혁신경영을 통한 공공기관과 기업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가고 있는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하는 상으로 조직에서 리더의 역할과 경영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다.

고창군이 이번에 대상의 영예를 안게 된 배경에는 민선6기 고창군을 이끌고 있는 박우정 군수가 집권 초기부터 군민의 행복한 삶과 더 나은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행정으로 맞춤형 복지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과 기업의 지역 투자를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함은 물론 친환경정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면서 자



연생태관광도시의 성공모델을 제시해 지역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있다는 지역민들의 여론도 함께 반영 되었다. 받았다.

또한 운곡람사르습지 에코촌 조성사업과 운곡습지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인천강수역 습지보호지역 지정 등 고창군을 국내 최고의 자연생태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도 높게 평가 되었다는 후문이다.

나아가 수상 소감을 묻는 자리에서 박군수는 “미래에는 잘 보존관리 된 자연이 중요한 자산인 만큼 고창군의 자산인 자연 생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세계 최고의 생태 관광도시를 만드는 친환경·친자연 정책을 핵심적으로 추진해 자연과 사람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병현 기자